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지아, 자신의 운명 조작한 세력 혼내는 복수극 선택

(tvN '판도라: 조작된 낙원')

2004년 LG텔레콤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입문한 이지아(본명 김지아)는 2007년 드라마 데뷔작 MBC '태왕사신기'에서 수지니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 받았다.

'태왕사신기'는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일대기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서사 무협극으로 한류배우 배우준이 출연해 당시 최고의 화제작이었다. 신인 여배우나 다름없던 이지아가 과격 캐스팅돼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의 김종학 감독은 "고현정이나 채시라 모두 내 드라마에 출연할 때는 신인이었다"며 "난 신인 연기자를 꺾고 다듬어 물건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많다. 충직한 인물이 바로 이지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배역을 뽑기 위해 수차례 오디션을 봤고 과정을 통해 배정된 두독한 이지아를 확정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지아는 훗날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6개월간 32번의 오디



피엔플러스 서울 강남구 청담동 4-1

션을 봤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오디션에서 심사위원들이 주인공 말고 다른 캐릭터를 주면 할 거냐고 물었는데 거절했다"며 "시청률이 낮으면 모든 비난이 내게 올 거라고 겁을 줬지만 '그럴 일 없을 겁니다'고 했

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성처럼 등장한 배우였던 터라 차기작 품은 무엇이 될지 대중의 호기심이 높았다. 이듬해 MBC 드라마 '베로렌 바이러스'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이자 시청 공무원인 두루미 역을 맡았을 때 연기해 흥행에 일조했다.

이후 2009년 SBS 드라마 '스타일'에서 잡지 기자 이서정 역을 맡았으며 2010년에는 SBS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에서 요원 한재희 역, 2011년 MBC 드라마 '나도 꽃'의 여주인공 순경 차보선 역을 맡아 윤시윤과 호흡을 맞춰 좋은 연기력을 선보였다.

연기활동을 계속 이어가 2013년 SBS 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전지 쇼호스트 오은수 역, 2015년 SBS 드라마 '열린 화에서 한연희 역, 2018년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강윤희 역, 2018년 KBS2 드라마 '오늘의 탐정'에서 선우혜 역 등 중

황무진 활약하며 스펙트럼을 넓혔다.

특히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방영했던 최고의 화제작 SBS '펜트하우스' 시리즈(1-2)에서 심수련과 나애교 1인 2역을 완벽히 소화해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펜트하우스'는 100층 펜트하우스의 범접불가 '퀵' VS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마돈나' VS 상류사회 입성을 향해 질주하는 '여자가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별이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을 담은 드라마이며 이지아는 제2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드라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배우 생활과는 별개로 2011년에는 전국을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 단순 열애설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에 '문화 대통령' 서태지와 결혼했고 2006년 별거를 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쏠렸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후 언론과 대중



배우 이지아

BH엔터테인먼트

에 노출을 피하며 신비주의 콘셉트를 유지했지만 이후 SBS '던닝맨' '힐링캠프' '집사부일체', tvN '온앤오프' '해치지 않아' 등 여러 예능에서 친근한 이미지를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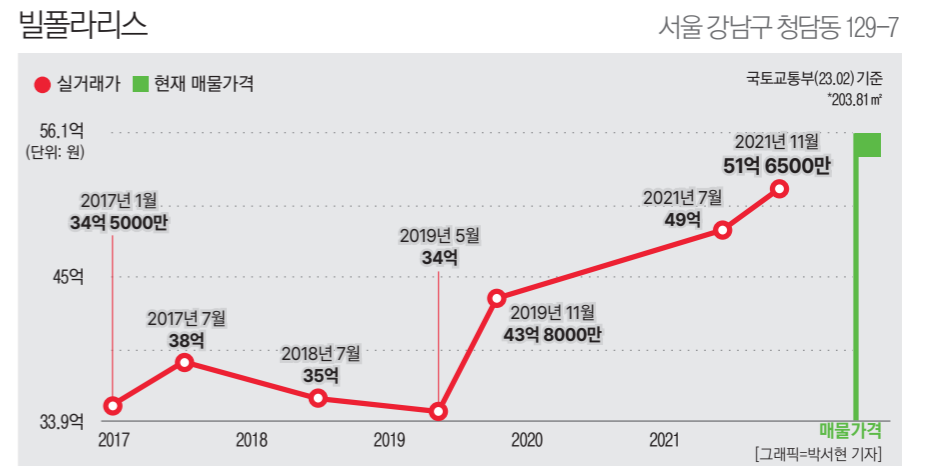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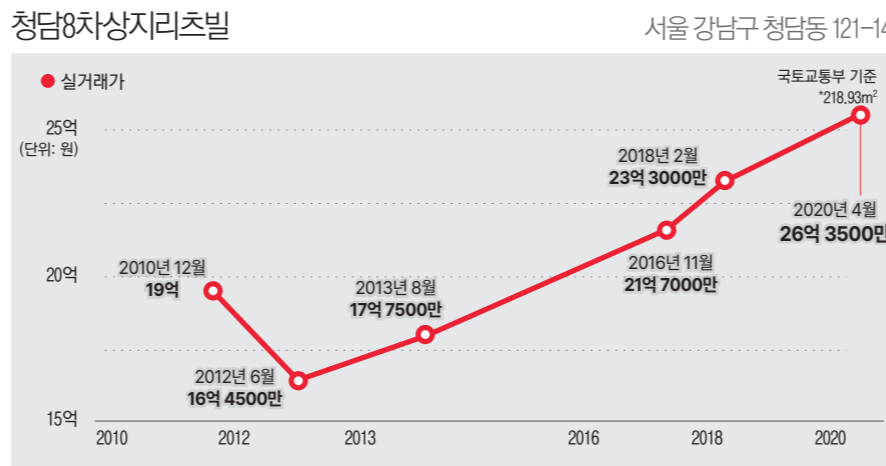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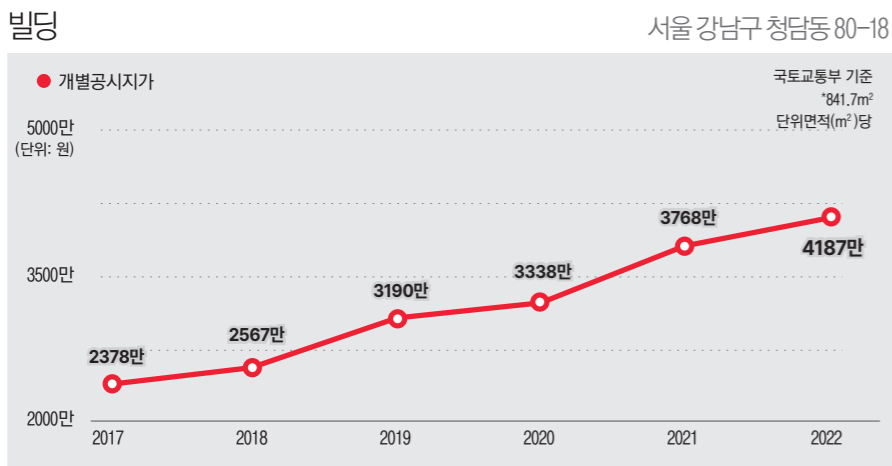
이지아가 tvN 새 드라마 '판도라: 조작된 낙원'으로 돌아온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여성이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조작한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펼쳐지는 복수극이다. '펜트하우스' '황후의 품격' '아내의 유혹' 등을 집필한 흥행메이커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해 한층 진화한 복수극을 완성한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흥태라를 연기하는 그는 복수의 화신으로 변모해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계획이었다는 무서운 진실을 마주한다. 이후 나락에 빠뜨린 배후를 찾아 응징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다.

11일 오후 9시 1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 일요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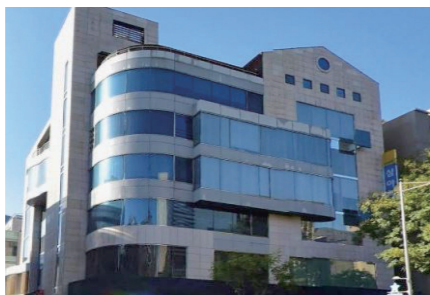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하준 현삼아제약 회장

하준 삼아제약 회장은 3세 경영인으로 창업주인 고(故) 허유 회장의 손자이자 그의 아들 고(故) 허억 명예회장의 아들이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3월 삼아약품공업(현 삼아제약) 영업부에 입사해 삼아약품 대표이사 부사장을 거쳐 2004년 허 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삼아약품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2006년부터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삼아제약은 오랜 전통의 장수제약사로 일반인들에게는 어린이갑약 '코코시럽' 등의 제

품이 유명하다. 해외 선진 제약업체들과의 기술 제휴에 나서는 등 산약 불모지나 다름없는 국내 제약 환경 속에서 신약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외부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 제약업계에서도 은둔의 경영자라는 시선을 받는다. 하준, 허미애 남매 공동 대표체제를 이어왔지만 작년 4월부터 단독 대표가 된 후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오정석 현서울대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

오정석 서울대 경영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에서 경영과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조교수를 거쳐 서울대 경영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경영과학, 통계 및 의사결정 모형, 비즈니스 분석학, 관리경제학, 품질경영 등 여러 강의를 맡았다. 또한 주요 일간지의 칼럼니스트, 객원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경영의 현 주소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세계적 기업의

선진 경영기법을 소개하며 경영의 혁신적 대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한국경영학회, 콘텐츠경영학회, 한국비데이터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펼쳤다. KBS1 라디오 '성공예감'의 '3분 라디오 MBA'를 약 1년간 진행해 대중에게도 익숙한 인물이다. 저서는 '앤스토어 경제학' '수의 분배의 경제학' '기술혁신과 경영전략' 등이 있다.



박민영 현배우

박민영은 2006년 데뷔작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민호(김해성 분)의 여자친구 강유미 역을 맡아 토크 뒤는 연기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후 KBS2 '아이 엠 샘' '전설의고향-구미호' '성균관 스캔들', SBS '자명고' 등 다양한 장르에서 끊임없이 연기변신을 시도했다. 특히 '성균관 스캔들'의 유생 김윤희 역을 연기하며 동문생인 이선준(박유천 분)과 문재신(유아인 분) 틈에서 가슴 설레는 멜로 연기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2007 MBC 방송

연예대상 코미디 및 시트콤부문 여자 신인상, '아이 엠 샘'으로 2007 KBS 연기대상 여자신인상, '성균관 스캔들'로 2010 KBS 연기대상 중편드라마부문 여자 우수연기상, '힐러'로 '2014 KBS 연기대상' 중편 드라마부문 여자 우수연기상 등을 받았다. 최근 출연작은 지난해 11월 종방한 tvN 드라마 '월수화복'이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경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조속 착공 건의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 받은 도민청원 1호에 대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5개 시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 하겠다"고 공식 답변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동인선 건설공사의 일부 구간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도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며 조속한 착공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저희(경기도수원화성안양 의왕-용인) 모두 함께 힘을 합쳐겠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이쪽 당, 저쪽 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기획재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화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공사 기간 중에 또는 구간 중에 생길 수 있는 교통 불편은 버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청원 1호 답변인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전 구간 조속 착공에 대해 답변했다. 경기도

중편이나 노선 신설 등으로 꼼꼼히 신경 쓰겠다"며 "도민 여러분이 하루에 1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루를 25시간으로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은 1월4일 처음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9일 만인 2월2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 명을 처음 돌파해 도민청원 1호가 됐다. 관련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1호 청원의 상징성과 현장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자체장과 함께 현장을 찾기로 결정해 오늘 행사가 이뤄졌다.

청원의 주된 내용은 KDI에서 진행하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상반기 내 완료하고 조속히 전 구간을 착공해달라는 것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2018

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1공구와 9공구 착공을 시작해 추진 중이나 사업 구간 내역사 4개소 신설, 터널 지반보강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현재 KDI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답변 후 김 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정명근 화성시장·최대호 안양시장·김성태 의왕시장·황준기 용인특례시장·부시장·이소영 김승원·민병덕 국회의원박육분·도의원 등 참석자들은 공동건의문에 서명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건의문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내 전 구간이 착공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의문은 경기도를 통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KDI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는 수도권 전철 3호선 연장 등 400만 경기남부 도민의 출퇴근 1시간 여유를 위한 풀포구 마련과 함께 버스 준공예제·광역버스 증차·GTx 플러스 등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대전, 3개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대전광역시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공모사업에 대전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 4년간(2023~2026)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 60억 원 등 총 180억 원을 연구장비산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는 탐방-용산-관평동 일원(1지구), 전민동 일원(2지구), 둔곡동 일원(3지구) 등 총 1.98㎢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연구산업 지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관리는 대전테크노파크가 맡는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연구장비산업을 집중 육성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선 국산장비 활용 랩과 연계하여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우수기술 기반 창업 촉진을 지원한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대전연구산업진흥단지 위치도. 대전시

또한 기술역량 강화 융합혁신 및 테스트베드 R&D를 지원하고 창업·사업화·시장장착 등 성장 주기를 맞춤형 지원도 모한다.

이와 함께 연구장비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구장비 협의회·포럼을 운영하고 해외 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